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강압·왜곡 공방

### 1심 무죄·2심 무기징역·20년형 ‘위법수사’ 인정...15년만에 재판 변호사 “검찰이 강압·조작 수사” 검찰 “자백 외 혐의 인정 정황”

지난 2009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 대해 15년 만에 재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부녀의 유죄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과거 검찰의 위법 수사 과정과 의도적으로 왜곡됐던 무죄 증거 등을 제시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백씨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



2009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린 3일 오후 부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해석할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과 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2012년 대법원도 2심의 선고대로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주요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다. 하지만 이들

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는데 사용했다던 숟가락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백씨 부녀는 유죄 확정 10년여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재심 절차 개시가 최종 확정됐

다.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 등을 재차 주장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도 없이 진술받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문맹인 피고인들이 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서로 작성했고, 조서 열람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을 숨기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백씨가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를 구입하려면 거주지에서 차를 몰아 순천 시내 시장에 들러 사 와야 하는데 구입 경로 CCTV에 백씨의 차량이 찍혀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톨게이트 이용 내역, 버스 탑승 이동 CCTV 등 백씨 부녀가 유죄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범행 증거로 확보한 플라스틱 수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농부들의 진술도 의도적으로 검찰이 감춰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도

기타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1심에서)무죄가 선고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재판은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을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한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으며 변호인 측은 허위 자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검사, 수사관, 경찰, 막걸리 판매점 주인, 농부, 교수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사와 박 변호사는 모두 허위 조서 작성과 강압 조사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살해 범행 동기로 짝한 부녀 사이의 성관계 관련 진술 조서에 참여한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법정진술이 확보됐다는 검찰의 입장과 달리 박 변호사 측은 위증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우선 채택된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는 한편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씨 부녀의 재심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1일 오후 4시10분에 열린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만취해 택시비 시비...경찰차 내리친 30대 ‘입건’

만취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차를 내리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 북부경찰은 경찰차를 손괴한 3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한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해 돈을 내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벌여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 장흥서 경차가 경운기 추돌...80대 숨져

장흥의 한 도로에서 경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숨졌다.

3일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께 장흥 용산면 풍길리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경차

가 앞서가던 80대 B씨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경운기가 도로 옆 도랑에 빠지게 되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 광주시교육청, 조리원 직종 149명 공개채용

광주시교육청이 2024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조리원 직종 149명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을 통해 4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시험 공고

일 전날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국내 거소신고가 광주지역이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31일 발표하며, 2025년 1월11일 2차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1월17일 발표된다.

채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현기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